

18세기 韓 · 中 民間交流에 대한 연구

-洪大容과 嚴誠을 중심으로-

具敎賢*

〈 目 次 〉

1. 머리말
2. 《乾淨衙筆談》과 《日下題襟集》 저작 배경
3. 錢塘文士의 유품
 - 1) 琉璃廠의 眼鏡
 - 2) 朝鮮六使臣 畫像
 - 3) 鐵橋外事 小像
 - 4) 潘庭筠의 畫扇
 - 5) 嚴誠, 潘庭筠, 陸飛의 그림
4.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1. 머리말

한 · 중 양국의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문인은 新羅의 崔致遠(857-?)이다. 2013년 6월 27일 韓 · 中 頂上會談에서 習近平 主席은 朴槿惠 大統領에게 崔致遠의 〈泛海〉 첫 구절 “掛席浮滄海, 長風萬里通.”이라는 시구를 인용하여 환영사를 전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한 · 중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6075868)

* 具敎賢 延世大學校 中國研究院 研究教授

만남을 넘어, 시와 문학을 매개로 한 깊은 정신적·문화적 유대를 이어온 것이다.

新羅 이후 양국 간의 詩文 교류는 지속되었지만, 주로 시가 외교정책을 위한 館伴使와 送伴使의 唱和詩가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한·중 민간교류는 조선 후기 北學派 문인들의 燕行을 통해 비로소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그 선두 주자는 湛軒 洪大容(1731-1783)이었다. 그는 季父 洪億(1722-1809)을 따라 여행 길에 올라, 浙江 杭州 출신의 嚴誠(1732-1767), 潘庭筠(1742-?), 陸飛(1719-?)를 우연히 만나 天涯知己의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비록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신 교환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깊은 우정을 맺었다.

그로부터 약 2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지만, 당시 교류 흔적은 우리나라의 博物館·圖書館·美術館 등에 귀중히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필자가 확인한 당시 錢塘文士¹⁾들이 선물한 유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乾淨衎筆談》과 《日下題襟集》의 저작배경

1) 《乾淨衎筆談》 저작 배경

洪大容(1731-1783)은 1765년(英祖 41), 35세 나이에 季父 洪億(1722-1809)의 子弟軍官 자격을 얻어 燕行에 동행하였다. 당시 조선은 華夷論에 입각해 明나라를 문명의 중심국으로 숭상하고, 淸나라를 오랑캐로 치부하며 배척하던 시기였다. 그의 동문 선배인 金鍾厚(1721-1780) 또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비린내 나는 원수의 나라에서 무엇을 안목 넓힐 수 있겠는가”²⁾라며 그의 여행을 만류하였다.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홍대용은 끝내 乙酉年(1765) 11월 2일 서울을 떠나 12월 27일 燕京에 도착하였다. 그는 그토록 염원하던 중국 문사들과의 만남을 고대하였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북경에 들어온 뒤로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 줄 인연도 없어 찾아가 볼 곳조차 없으니, 매번 시장과 정육점 사이를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슬프고 장한 노래의 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 불행히도 시대에 늦게 태어났음을 한탄하였습니다.”³⁾ 라고 그는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은 곧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졌다. 그 인연의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안경’이었다. 비장 李基成⁴⁾이 원시경을 구하기 위해 琉璃廠에 들렀다가, 京師에서 치

1) 이후 본고에서는 嚴誠·潘庭筠·陸飛 등을 묶어 ‘錢塘文士’로 통칭하고자 한다.

2) 金鍾厚《本庵集》卷三〈答洪德保〉：“以蹈腥穢之蠻域者，豈非以目之局而思欲豁而大之耶。”

3) 《湛軒書》外集二卷〈杭傳尺牘·乾淨衎筆談〉二月五日：“但入京以後，行止不得自由，且無引進，尋謁無處，每徊徨於街市屠肆之間。想望於悲詞慷慨之跡，而竊自傷其不幸而生之後也。”

르는 會試에 응시하기 위해 浙江省 杭州 錢塘에서 상경한 嚴誠과 潘庭筠, 그리고 陸飛를 만나게 되었다.⁵⁾ 홍대용은 이들과의 조우에 대한 감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홀연히 일이 서로 맞아 떨어져, 찾던 분이 바로 이곳에 계셔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니, 때마침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생을 헛되이 보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⁶⁾

홍대용은 전당문사 嚴誠·潘庭筠·陸飛와 朝鮮六使臣인 正使 李煊, 副使 金善行, 書狀官 洪檉, 그리고 자제군관 洪大容과 金在行이 錢塘의 문사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하였다. 이 가운데 홍대용은 특히 嚴誠과 천애지기의 우정을 맺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당시의 교유 양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과 예술품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다.

홍대용은 3월 1일 북경을 출발하여 5월 2일 고향 壽村(현 天安)에 도착하자, 연행 시에 약속, 즉 “귀국 후에 문답한 談草를 기록하여 일생동안 보면서 생각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며, 또한 벗들에게 보여주어 후손에게 우리의 만남을 전하려 한다.”⁷⁾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전당의 문사와 교류한 談草를 정리하였다.

“저는 丙戌年(1766) 4월 11일에 압록강을 건넜고, 5월 초이틀에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달 15일에 여러 공들의 簡牘들을 모두 정리하여 총 4첩으로 만들어 《古杭文獻》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6월 15일에는 필담과 만남의 전말,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두 기록하여 총 3권으로 만들어 《乾淨衙會友錄》이라고 제목을 달았다.”⁸⁾

洪大容은 燕京에서 錢塘文士들과의 만남을 기록한 책을 《古杭文獻》이라 명명하였으며, 이후 내용을 보충하여 《乾淨衙會友錄》이라는 책으로 편찬하였다.⁹⁾ 또한 이 사실을 중국

4)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李基成小像〉: “安義節制使 李基成(正使 李煊의 裨將)은 조선의 사신단들은 이령공이라 불렀으며, 나이는 50세로 옛 군자의 모습이다.(鐵橋曰, 安義節制使李基聖, 彼國皆稱之曰李令公, 年五十五歲, 古君子也.)”

5) 陸飛는 2월 23일에 洪大容·金在行과 만났는데, 이는 그가 嚴誠과 潘庭筠보다 늦게 燕京에 도착하여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6)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 2月 5日: “乃事有湊合, 其人斯在, 邂逅相遇, 適我願兮. 從此而雖一朝湔然, 亦不可謂虛度此生也.”

7)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 2月 17日 “余曰, 歸後以此錄出問答之語, 以爲生前睹思之資. 且以示之儕流, 傳之後孫耳.”

8) 《湛軒書》外集一卷 〈杭傳尺牘·與潘秋庵庭筠書〉: “弟以四月十一日渡鴨水, 以五月初二日歸鄉廬. 以其十五日, 諸公簡牘, 俱粧完共四帖, 題之曰古杭文獻. 以六月十五日而筆談及遭逢始末, 往復書札, 并錄成共三本, 題之曰乾淨衙會友錄.”

전당 문사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러자 陸飛가 乾淨衙 이름이 우아하지 않다며,¹⁰⁾ 《京華筆談》으로 수정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蘭公 곁에서 그대가 보낸 편지에서 말한 《古杭文獻》과 《會友錄》을 보게 되었는데, 옛 벗을 잊지 않는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다만 '文獻'이라는 말은 감당하기 어려우니, 저 陸飛의 뜻은 정말로 솔직함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목을 《杭友尺牘》이라 하려 했으나, '乾淨衙'은 우아하지 못하므로, 《京華筆談》으로 바꾸려 하는데 어떻습니까?”¹¹⁾

홍대용은 '乾淨衙'이라는 책명을 끝내 고수하여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1772년에 《乾淨筆談》¹²⁾이라 하였고, 홍대용 사후에는 《乾淨筆談》 또한 보완 수정되어 《乾淨衙筆談》이 간행되었다.¹³⁾ 이밖에 乾淨衙에서 만난 전당문사와의 교유에 관한 방계 문헌으로는 《乾淨後編》·《乾淨附編》¹⁴⁾ 등이 있다. 그리고 2016년 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教 博物館에서 湛軒 洪大容이 받은 중국 선비들의 친필 편지 모음집인 《中士寄洪大容手札帖》이 간행되었다.

2) 《日下題襟集》의 저작 배경

嚴誠의 자는 鐵橋, 力闇으로 불렸고¹⁵⁾, 또한 '不二'라고도 하였으며, 이름을 '誠'이라 지은 것은 평생에 '진실하라'는 뜻이며, 별호를 '不二'라 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 있다.¹⁶⁾ 그의 상세한 주소는 杭州 東城 太平門 菜市橋의 근처이며, 당시 그의 나이는 壬子年

9)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63 〈天涯知己書〉에서 “《乾淨衙會友錄》은 '祕本' 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今撮會友錄秘本)”

10) 洪大容의 책명으로 사용된 '乾淨衙'은 北京 宣武區 東北部에 위치한 지명으로, 東쪽으로는 前門 거리에서 시작하여 西쪽으로는 煤市 거리에까지 이른다. 明代의 《京師五城坊巷胡同集》에 따르면, 본래 '마른 우물의 골목'이라는 뜻의 '乾井兒胡同'이라 불리다가, 淸 光緒(1875-1908) 연간에 이르러 '달콤한 우물이 있는 골목'이라는 뜻의 '甘井胡同'으로 개칭되었다.

11) 《湛軒書》外集一卷〈杭傳尺牘·與潘秋庵庭筠書〉: “從蘭公處已得見致渠手札所云《古杭文獻》及《會友錄》, 具見不忘故人, 第文獻則不堪當, 飛意竟從老實. 題曰《杭友尺牘》, 乾淨衙不雅, 擬易之曰《京華筆談》, 何如?”

12) 현재 崇實大學校 基督教 博物館에는 《乾淨筆談》 권1은 소실되고, 권2만이 전해져 소장되어 있다.

13) 《乾淨衙筆談》은 1939년에 홍대용의 5대손인 洪榮善에 의해 편찬 출판되었다.

14) 《乾淨後編》과 《乾淨後篇》은 崇實大學校 基督教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15) 《鐵橋全集》卷三 嚴果〈仲弟鐵橋行略〉: “弟名誠字力闇一字鐵橋.”

16) 《湛軒書》外集 卷2 〈杭傳尺牘·乾淨衙筆談〉2月 12日 “生平以誠字命名, 又別號不二..”

(1732)에 태어났다.¹⁷⁾

《日下題襟集》은 淸 嚴誠(1732-1767)의 문집으로, ‘日下’는 燕京의 옛 명칭이고,¹⁸⁾ ‘題襟集’은 ‘흥금을 토로한 문집’이란 뜻이다. 바로 嚴誠이 燕京에서 丙戌年(1766)에 洪大容 일행을 만나 주고받은 필담을 수록한 것으로, 그의 《鐵橋文集》권4, 권5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嚴誠은 연경에서 洪大容과 천애지기의 우정을 맺었으며, 이후 과거 시험에 낙방해 귀향한 뒤 학질에 걸려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죽음을 생생히 전하는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고 돈독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乙酉年(1765)에 鄉試에 합격하였고, 丙戌年(1766)에 禮部 시험에서 낙방하였다. 그 다음 해(1767)에 南閩(지금의 福建省)의 學使의 초빙에 응하였다. 그러나 먼 곳으로 가는 것이 본래 그의 뜻이 아니었고, 양친을 봉양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걸려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결국 병에 걸려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본가에서 세상을 떠났다.”¹⁹⁾

會試에 낙방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철교는 丁亥年(1767)에 閩의 학사로 부임한 王公이 그의 높은 학문을 전해 듣고 자녀의 교육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노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²⁰⁾ 그러나 왕공이 사람을 보내고 선물까지 전하며 거듭 청하자 마침내 이를 받아들였다.

南閩(現 福建省)으로 간 지 오래지 않아 학질에 걸려 병세가 위중해졌고, 부득이 귀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철교는 雍正 10년 壬子年(1732) 4월 11일에 태어나 乾隆 32년 丁亥年(1767) 11월 5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은 36세였다.”²¹⁾

鐵橋 嚴誠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동향의 友人 朱文藻(1735-1806)²²⁾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17) 洪大容 《乙丙燕行錄》 2月 3日

18) ‘日下’라는 명칭은 《晉書》 처음으로 보이는데, 潁川이 晉나라 수도 洛陽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日下’라고 불렀다. 이후 唐나라 시인 王勃의 〈滕王閣序〉에서 “멀리 長安을 태양아래(日下) 바라보며, 吳郡과 會稽郡을 구름 사이에서 가리켜본다. (望長安於日下, 指吳會於雲間.)”라는 구절을 썼는데, 이는 바로 이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日下’는 수도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北京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일 때는 청나라 사람 朱彝尊의 《日下舊聞》과 건륭 연간에 편찬된 《日下舊聞考》 등이 있다.

19) 《鐵橋全集》卷三 外集 吳綸〈嚴先生小傳〉: “乙酉領鄉薦, 丙戌試禮部不第. 其明年, 應南閩學使聘. 因人遠遊非其素志, 重念兩親不得奉養, 不欲久居, 竟以成疾. 歸未幾卒于家.”

20) 《鐵橋全集》卷三 外集 嚴果〈仲弟鐵橋行略〉: “丙戌赴禮闈報罷, 是歲果館督閩學使王公署中公間弟名, 欲令子師事之, 遂因果歸省, 遣伴致書幣, 弟初以親老體孱, 行有難色.”

21) 《鐵橋全集》卷三 外集 嚴果〈仲弟鐵橋行略〉: “弟生于雍正十年壬子四月十一日, 卒于乾隆三十二年十一月五日, 年三十有六.”

22) 朱文藻(1735-1806)의 자는 映潯, 호는 朗齋 仁和(現 浙江省 杭州)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독서

“임종을 맞이하던 날에 나(朱文藻)를 불러 침상에 앉히더니, 가슴속에서 홍대용의 편지를 꺼내 읽게 하는데, 嚴誠은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또한 홍대용이 보내온 묵을 꺼내 냄새를 맡으면서 옛 향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미소 짓더니 품속으로 다시 넣었다. 이때는 이미 혀가 굳고 입이 돌아갔으며 손을 부르러 떨며 숨을 몰아쉬는 것으로 보아 더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아 슬프구나.”²³⁾

鐵橋 嚴誠이 병으로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홍대용이 “선물한 먹을 품에 넣고 냄새를 맡았으며, 또한 그 먹을 관에 함께 넣어”²⁴⁾ 두 사람의 우정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다고 한다. 이는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 조카[嚴誠의 아들 嚴昂]가 갑자기 京師에서 주고받은 遺稿를 수습해 놓았으니 문집의 편차를 정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나는 철교가 병으로 죽게 됨을 애달피 여겼기 때문에 남아 있는 여러 사람들의 手迹을 먼저 정리하여 한 책으로 편집하였다. 철교가 경사에서 증답한 시문을 附錄에 삽입하였기에 그의 본집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건융 丁亥年(1767) 12월 입춘 3일 전에 朱文藻가 저술한다. 己丑年(1769) 겨울 홍군이 《鐵橋遺唾》 책 한권을 보내왔다. 이전의 원고를 교정하고 缺字는 모두 보충하였고, 엄성과 홍대용이 기록이 다른 부분은 아래에 상세히 주를 달았다. 庚寅年(1770) 12월 입춘, 文藻 다시 기록하였다.”²⁵⁾

朱文藻는 嚴誠의 문집을 두 차례에 걸쳐 편찬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초의 편찬은 丁亥年(1767)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嚴誠의 문집을 초록하여 《日下題襟合集》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羅以智(1788-1860)는 이 문집을 다시 초록하면서 이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나는 振綺堂 汪氏 서재에서 朱先生의 초본을 보았다. 이 문집은 임시로 기록한 副本이므

를 좋아하여 諸子百家의 책을 탐독하였다. 그는 학식이 해박하여 六書와 史學에 정통하였고 시문에도 뛰어났다. 청나라 건륭제 때 大學士 王杰의 소개로 《四庫全書》의 편집 업무에 참가하였다. 그는 嚴誠과 동향인이며 友人으로 《鐵橋全集》을 편집하여 홍대용에게 보냈던 인물이다.

23)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序〉: “招余坐牀第, 被中出洪書, 令讀之. 視眼角, 淚漣漣下. 又取墨嗅之, 愛其古香, 笑而藏之. 時已舌僵口斜, 手顫氣逆, 不能支矣. 悲夫.”

24) 《湛軒書》外集 附錄〈洪德保墓誌銘〉: “誠之在閩病篤, 猶出德保所贈鄉墨嗅香. 置胸間而, 遂以墨殉于柩中.”

25)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序〉: “今猶子奏唐收拾遺稿, 乞余編次. 余感鐵橋彌留卷卷之意, 因先取其所存諸人墨迹編錄一冊, 凡鐵橋所與贈答詩文悉附入, 故本集不載. …乾隆丁亥十二月立春前三日, 朱文藻述. 己丑之冬, 洪君湛軒寄來鐵橋遺唾一冊, 校舊稿, 闕者悉補入, 有不同者詳注于下. 庚寅十二月立春日, 文藻又記.”

로, 빠진 글자는 감히 임의로 보충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글자는 감히 고치지 않았다.… 붓을 들고 기록을 붙여 적는다. 道光 庚戌年(1850) 가을 7월 초하루, 羅以智가 쓴 발문.”²⁶⁾

羅以智는 錢塘에 거주하는 汪氏(汪端 1793-1839)의 서재 振綺堂에서 朱文藻의 초록본을 보았으며, 道光 30년(1850) 8월 8일에 다시 이 문집을 초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원본에 있는 결락이나 의심스러운 글자를 함부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문집에는 嚴誠이 그린 조선 육사신의 초상화 6폭이 첨부되어 있으며, 현재는 北京大學圖書館 域外漢籍珍本文庫에 소장되어 있다.²⁷⁾

朱文藻는 《日下題襟合集》 초편본을 편찬할 때, 초서 등으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을 결자로 처리하였다. 1768년(영조 44) 7월, 홍대용은 嚴誠의 형 嚴果에게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嚴誠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초록한 책자 한 부를 함께 전달하였다. 그는 이 책에 “잘못된 글자가 많으나,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교정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으며, 책명은 《鐵橋遺唾》였다.

이듬해인 己丑年(1769) 겨울, 주문조가 홍대용으로부터 《鐵橋遺唾》를 전달받고, 庚寅年(1770) 12월, 주문조는 이 책을 근거로 《日下題襟合集》 초편본에서 누락된 문장을 보완하고, 글자가 상이한 부분에는 주석을 달아 《日下題襟集》으로 정리한 뒤 《鐵橋全集》 부록에 수록하였다. 嚴誠의 형 嚴果는 홍대용에게 이 전집을 보내는 과정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辛卯年(1771), 저 嚴果는 京師에 올라 會試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鐵橋遺集》을 가져가면서 답書도 함께 행낭 가방에 넣어두었으나, 끝내 湛軒 죽하에게 보낼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여전히 귀향 길 속에 비밀리 간직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전달할 길이 없어 마음에 잊혀 지지 않아, 자나 깨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올봄에 갑자기 都城(燕京)에 머물던 나그네가 杭州로 돌아가면서, 三河의 孫蓉洲선생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죽하께서 지난겨울에 보내신 친필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鐵橋詩文》과 《日下題襟集》을 올려드리니, 한 가지 격식으로 베껴서 모두 다섯 권으로 장정했습니다. 이 문집은 세상에 단 세 본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중 한 본입니다. 글씨는 비록 잘 쓰지

26) 羅以智 〈日下題襟合集跋〉: “予于振綺堂汪氏見朱先生小抄, 是集假錄副本, 缺字不敢矯, 疑字不敢改. …泚筆而增識之, 道光庚戌秋七月朔羅以智跋.” (北京大學圖書館藏朝鮮版漢籍善本萃編 《日下題襟合集》(西南師範大學出版社, 人民出版社, 2014, 618-619쪽))

27) 北京大學圖書館編 《朝鮮版漢籍善本萃編》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4 第10冊 619쪽

못하지만, 족하께서는 반드시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乾隆 甲午年(1774) 夏至 후 10일, 愚兄 哀子 嚴果 눈물과 피로써 머리를 조아려 절합니다.”²⁸⁾

正祖 2년(1778), 나 李德懋(1741-1793)가 通州를 지날 때, (三河에 사는 홍대용의 벗) 孫蓉洲가 鐵橋遺集과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다.²⁹⁾ 이로써 홍대용이 嚴誠의 형 嚴果에게 《鐵橋文集》을 요청한 지 9년 만에 이 책자와 초상화를 받아볼 수 있었다.³⁰⁾

그러나 현재 朱文藻가 초록하여 洪大容에게 보낸 《鐵橋全集》의 원본은 이미 소실되었다. 한때 세상에는 《鐵橋全集》이 단 세 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서 刊寫者 未詳의 筆寫本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鐵橋全集》은 檀國大 退溪中央圖書館,³¹⁾ 國史編纂委員會,³²⁾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³³⁾ 소장되어 있다.

3. 錢塘文士の 유품

본 논고에서는 전당문사 3인과 조선 육사신이 교류하면서 안경·인장·초상화·그림 등을 선물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유품의 소장처를 확인함으로써, 당시 만남의 생생한 장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해 보고자 한다.

1) 琉璃廠 眼鏡

28) 嚴九峯〈湛軒先生手啓〉: “往歲辛卯果赴北關, 曾携鉄橋遺集, 并附答書, 置行笥中, 終以無便覓寄, 仍秘歸裝四年於茲, 無路申達, 此心耿耿寤寐爲勞. 今春忽有都門寓客歸杭, 賁到三河孫蓉洲先生書, 中有足下去冬所寄手書一函. … 今奉上 《鉄橋詩文》并 《日下題襟集》. … 乾隆甲午夏至後十日愚兄哀子 嚴果泣血稽顙.” (《燕杭詩牘》 서울대규장각 소장본 33-34쪽)

29) 《靑莊館全書》卷67 〈入燕記〉下 十七日: “昨夜, 余逢蓉洲於通州. 蓉洲以爲洪公前托余得湖州士人嚴鐵橋誠遺集及小照. 我已得之, 寄置於三河塩店吳姓人. 君過三河, 可以索之, 歸傳洪公.”

30) 《湛軒書》外集 附錄 〈洪德保墓誌銘〉: “子昂名書稱伯父, 寄其父鉄橋遺集, 轉傳九年始至. 集中有誠手畫德保小影.”

31) 檀國大 所藏본은 《鉄橋全集》5책 중 1, 2, 4책만 전한다. 筆寫本으로 刊寫者未詳임.

32) 國史編纂委員會에 소장된 《鉄橋全集》은 朝鮮史編修會에서 필사한 사본으로, 刊寫者 미상이다. 이 사본은 1770년 후손 洪思憲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베껴 만든 것으로, 전체 5권 5책이며 크기는 27×19.5cm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33) 서울대 소장본 《鉄橋全集》은: 昭和10年(1935) 3月 洪氏(洪思憲) 所藏한 寫本을 필사한 것임. 5冊; 26.7 x 18.5cm으로 현재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문집이다.



1765년 홍대용과 함께 연행한
간이(江陰)의 유리창에서
안경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때 안경을 쓰고 지나가던
청나라 문인 엄성과 반정
균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길이 14.9cm/ 재질 骨角貝甲
〈그림1〉 서울 歷史博物館 009340

서울 歷史博物館에 소장된 이 안경의 설명에 “1765년 홍대용과 함께 연행한 간李基成이 유리창에서 안경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때 안경을 쓰고 지나가던 청나라 문인 엄성과 반정균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裨將 李基成³⁴⁾이 원시경을 사기 위해 琉璃廠에 들렀다가, 3월 會試를 보기 위해 浙江 杭州 錢塘으로부터 상경한 嚴誠(1732-1767)과 潘庭筠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嚴誠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建戌 31년 丙戌年(1766) 1월 26일 李公이 北京 琉璃廠의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昌黎全集》을 막 사고 나오던 참이었다. 그때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며 차마 내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종이를 꺼내 글을 써 보여주는데, 많은 돈을 줄 테이니 안경을 팔라는 것이었다. 나는 안경을 벗어 주고 돈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 이미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2월 초하룻날 이른 아침에 심부름꾼이 내가 머무르는 곳으로 갑자기 찾아왔다...”³⁵⁾

이러한 만남에 대해 홍대용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嚴誠의 기록은 훨씬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昌黎全集》을 막 구입해 나오는 장면이나 엄성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모습 등은 홍대용의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³⁶⁾ 세부 사항들을 상세히

34)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李基成小像〉: “安義節制使 李基成(正使 李煊의 裨將)은 조선의 사신단들은 이령공이라 불렀으며, 나이는 50세로 옛 군자의 모습이다.(鐵橋曰, 安義節制使李基聖, 彼國皆稱之曰李令公, 年五十五歲, 古君子也.)

35)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李基成小像〉: “乾隆三十一年, 歲在丙戌, 正月二十六日, 李公初與余遇於京師琉璃廠書肆. 方買昌黎全集, 見余眼鏡, 愛之不忍釋手, 索紙作書, 欲以多金相易, 余遂脫手贈之, 不受其金而歸. 已置之矣, 忽于二月初一日蚤, 遣使到寓...”

36)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 “二月一日, 裨將李基成爲買遠視鏡, 往琉璃廠遇二人. 容貌端麗, 有文人氣而皆戴眼鏡, 盖亦病於近視者. 乃請曰, 我有親識求眼鏡, 而市上難得眞品, 足下

묘사하고 있다.

다만 嚴誠은 琉璃廠에서의 李公과 的 만남을 1월 26일로 기록하고, 2월 1일에 자신의 숙소로 다시 찾아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은 洪대용의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홍대용은 이기성이 2월 1일 유리창에서 엄성 일행을 만났으며, 2월 2일에 부채·먹·환제를 선물하자 嚴誠 일행이 羽扇·筆墨·차·담배 등으로 답례하였고,³⁷⁾ 이어 2월 3일에는 李基成·洪大容·金在行³⁸⁾이 嚴誠이 머무르는 乾淨衙의 객관 天陞店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⁹⁾

琉璃廠에서 만난 일정이 嚴誠은 1월 26일이라 하였지만, 洪대용은 이날을 2월 1일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5일의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정에 관해서는 洪大容의 기록이 보다 신뢰할 만하다. 그는 뜻이 맞는 문사들과의 만남을 후세에 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반면, 〈日下題襟集〉의 편찬은 嚴誠 자신이 아닌, 친구 朱文藻가 그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기억에 따라 편찬된 것이므로, 세부 일정에는 일부 기억상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있다.

2) 朝鮮六使臣 畫像

이 朝鮮六使臣畫像은 嚴鐵橋가 燕京으로부터 鄉里로 돌아온 뒤 6公의 회상을 완성하여, 그의 문집 《嚴鐵橋全集·顯襟集》에 수록하였다. 嚴誠 사후 朱文藻가 丁亥年(1767)에 이 문집의 초상화를 보고 묘사하였고, 그 이후 庚寅年(1710)에 丁亥年 本을 보고 다시 그렸다.

朝鮮史編修會는 昭化12년(1937) 9월 洪大容의 후손 洪思憲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던 〈朝鮮六使臣畫像〉의 초상화를 수록하였다.⁴⁰⁾ 해방 이후 國史編纂委員會에서 사진유리필름으로

所戴甚合病眼, 幸賣與我, 足下則或有副件, 雖求之亦當不難矣”

37)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 乾淨衙筆談 2月1日: “明日, 基成果尋至其居. 并以扇墨丸劑與之, 皆辭謝然後受之, 禮制甚恭. 而復以羽扇筆墨茶烟等物報之.”

38)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金秀才小像〉에서 “金秀才의 이름은 在行(?-?), 자는 平仲, 호는 養虛로, 금년 45세이다. 淸陰先生 질증손이며 金宰相(副使 金善行)의 동생이다. 본래 선비였으나 무장 복장을 한 것은 중화 문물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며, 사신단을 수행하면서 무장 복장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매번 스스로를 희롱하며 말하기를, ‘武夫 武夫’라 말하곤 했는데, 그는 호탕하고 기개가 넘치는 선비였다. 시를 잘 짓고, 草書에 뛰어났으며, 복장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행동거지가 소탈하여 사랑스러웠다.(鐵橋曰, 金秀才在行, 字平仲, 號養虛, 年四十五歲, 淸陰先生姪曾孫也, 金宰相之弟. 本秀才而作戎裝者, 因願見中華風物, 故隨使來而改服耳. 每自謔曰武夫武夫云, 豪邁倜儻之士. 工詩善草書, 不修邊幅, 舉止疎放可喜.)”

39)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 二月一日: “乃約明日同往, 而金在行平仲聞之, 亦樂與之偕焉.”

40) 朝鮮史編修會 朝鮮總督府《朝鮮史料眞集》下卷17卒.

제작하여 소장하고 있으며,⁴¹⁾ 그 가운데 네 번째 홍대용의 화상에는, 朱文藻가 그린 원본이라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⁴²⁾



<그림2> ① 裨將 李基成



<그림3> ② 正使 李煊

① 裨將 李基成의 초상화를 그리고 왼쪽에는 嚴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朝鮮 六公의 小像은 鐵橋가 京師(燕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그렸다. 내[朱文藻]는 丁亥年(1767) 12월에 嚴誠이 그린 원본을 한차례 摹寫하였고, 지금(1770) 다시 정해년에 그렸던 사본을 거듭 모사하다 보니, 그만 생동감을 잃고 말았다. 庚寅年(1710) 자월(陰曆 11월) 朱文藻가 기술하였다.(朝鮮六公小像, 皆鐵橋自京歸里日所畫. 丁亥歲暮手摹一過, 今又從丁亥本重摹, 神氣失矣. 庚寅子月, 朱文藻并記.)”⁴³⁾

41) 朝鮮史編修會 〈朝鮮六使臣畫像〉의 소장번호는 SJ0000014853 ~ SJ0000014863이다.

42) 朝鮮史編修會 朝鮮總督府《朝鮮史料眞集》下卷17쪽.

43)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李基成小像〉



〈그림4〉 ③ 副使 金善行



〈그림5〉 ④ 湛軒 洪大容



〈그림6〉 ⑤ 平仲 金在行

〈그림7〉 ⑥ 書狀官 洪億

사진크기 ; 10.9×15.7cm.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이 초상화 또한 《鐵橋遺集》과 함께 장장 9년 만에 홍대용에게 전달되었다.⁴⁴⁾

홍대용이 燕京에서 嚴誠과 교류할 당시 ‘조선육사신의 초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서 하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일찍이 嚴誠이 묵고 있는 乾淨衙에 간 적이 있는데, 嚴誠의 하인들이 한 첩을 내보여 주었는데, 첩 중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모두 아주 닮았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그 까닭을 묻자 하인들이 대답하기를, ‘두 나리께서 이것을 그린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그리워할 자료로 삼기 위해서’ 라고 했다.”⁴⁵⁾

44) 《湛軒書》附錄 朴趾源 〈洪德保墓誌銘〉: “書稱伯父寄其父鐵橋遺集轉傳九年始至. 集中有誠手畫德保小影.”

45) 《湛軒書》外集卷三 〈杭傳尺牘·乾淨衙筆談〉續 2月 29日: “歸路聞僕人言, 嘗往乾淨衙, 其僕人輩出示一帖, 帖中畫吾輩像皆酷肖. 乍見可知其爲誰某, 渠問其故則僕人輩答云, 兩老爺作此, 爲歸後睹思之資云.”

홍대용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육사신화상’은 적어도 2월 29일 이전에 이미 대략적인 구도가 완성되었고, 귀향 후에 본격적인 초상화 작업이 완성되어 홍대용에게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鐵橋外事小像



크기; 22.3 x 28.5cm
〈그림8〉 果川 秋史博物館 所藏

鐵橋 嚴誠의 초상화는 현재 果川 秋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화가는 蘿龕 (본명은 奚岡, 1746-1803年) 으로 나무판 표지 뒷면에 嚴果가 쓴 발문이 있다. 그림의 왼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鐵橋外事小像은 庚寅年(1770) 9월 21일 밤, 蘿龕이 등불 아래 翠玲瓏館⁴⁶⁾에서 그렸다. (庚寅九月二十有一日夜, 蘿龕燈下摹于翠玲瓏館).”

46) 翠玲瓏館은 蘇州 滄浪亭 園林 안에 위치해 있다.

이 초상화는 嚴誠이 향년 36세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형 嚴果가 蘿龕에게 부탁하여 그린 것이다. 이 초상화가 홍대용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음을, 湛軒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辛卯年(1771), … 《鐵橋遺集》을 보내면서 별도로 《鐵橋遺照冊葉》 한 본이 있어 이것도 함께 올려드리며, 또한 朱郎齋가 戊子年(1768)에 쓰서 올린 한 통, 저 嚴果가 庚寅年(1770)에 쓴 이전 편지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미 《題襟集》 안에 편입되었지만, 원본 편지도 이제 함께 올려드리니, 바라건대 함께 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乾隆 甲午年(1774) 夏至 후 10일, 愚兄 哀子 嚴果 눈물과 피로써 머리를 조아려 절합니다.”⁴⁷⁾

홍대용이 당시 받았던 것은 《鐵橋全集》 1부, 鐵橋遺照冊葉, 朱文藻가 戊子年(1768)에 쓴 서찰 1통, 嚴果가 庚寅年(1770)에 쓴 서신 원본이다. 본래 이 초상화는 홍대용의 가문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유실되었다가, 다행히 현재는 果川 秋史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嚴誠의 초상화 역시 정조 2년(1778) 연경에 사행한 李德懋에 의해 홍대용에게 전달되었다.⁴⁸⁾

지금 이 초상화를 보니 홍대용이 乾淨衲에서 嚴誠을 만나 그 첫인상에 대해 말한 기록이 생각난다. “嚴誠은 몸이 마른 체질이고 얼굴에 골격이 많고 儒雅한 가운데 호상한 기운을 띄어 잠깐 보아도 시속에 얽매이지 않은 인물이었다.⁴⁹⁾ 이가 빠져 있었고, ⁵⁰⁾ 또한 머리가 빠져 번들번들하였다.” 라고 하였다.⁵¹⁾ 홍대용은 嚴誠의 생김새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7) 嚴九峯 〈湛軒先生手啓〉: “往歲辛卯果赴北關, …外有鍊橋遺照冊葉一本, 亦附上其朱郎齋戊子奉書一函, 并果庚寅前書, 雖已纂入題襟集中, 原書今亦附上, 希一併收覽… 乾隆甲午夏至後十日愚兄哀子 嚴果泣血稽顙.” (《燕杭詩牘》 서울대규장각 소장본, 33-34쪽)

48) 《靑莊館全書》卷67 〈入燕記〉下 6月 17日 참조

49) 洪大容 《乙丙燕行錄》2月 3日

50) 《湛軒書》 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衲筆談〉2月 3日: “余曰, 嚴兄未老齒疎何也”

51) 《湛軒書》 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衲筆談〉2月 3日: “兩人問僧梳二字, 余以漢語答曰, 和尚頭髮, 沒有篦子那里使得. 皆大笑, 指其頭曰我們亦光光的.”

4) 潘庭筠 畫扇



潘庭筠 畫扇面 紙本墨書 | 35.0×65.0cm |
〈그림9〉 水原歷史博物館 所藏

水原歷史博物館에 소장된 부채는 潘庭筠이 副使 金善行(1716-1768)에게 연행 시에 받은 선물로 추정된다. 潘庭筠은 먹의 농담을 적절히 운용하여 古梅를 그린 뒤 직접 지은 시를 行書로 題詩하였다. 말미에 金善行의 요청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쓴 뒤 ‘庭筠之印’을 낙관하였다. 부채에 題詩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畧勾去瓣破清寥, 간략히 꽃잎을 그려 맑은 고요함을 깨뜨렸더니,
便有空香冷過橋. 문득 허공의 향기가 싸늘히 다리를 지나오네.
夢醒風亭思酒椀, 바람 부는 정자에서 꿈 깨니 술 한 사발이 그리운데,
女郎山北雪瀟瀟. 여랑산 북쪽에는 눈발이 흩뿌리네.
畫應述夫先生大教 庭筠 매화 그림을 그려서 述夫(金善行의 자) 선생의 부탁 말씀에
부응해드립니다. 정균

부사 金善行은 丙戌年(1766) 2월 4일, 단 한 차례 전당문사 嚴誠과 潘庭筠을 조선사신단이 묵고 있는 객관에서 직접 만났다. 그 이후 2월 29일까지도 하인을 통해 시문과 선물을 지속

적으로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갔다. 金善行은 秋庫 潘庭筠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얼마 전 찢막한 편지를 올렸는데, 이런 분수에 넘치는 훌륭한 은혜로 산수와 목석이 그려진 그림을 보내주시니, 한 점 한 점마다 우리 모두의 정신과 신묘함이 서려 있습니다. … 병술년(1766) 2월, 善行 삼가 머리 숙여 올립니다.”⁵²⁾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 潘庭筠은 부사 金善行에게 그림 등을 선물하였으며, 이 부채 또한 연행 당시 받은 선물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嚴誠, 潘庭筠, 陸飛의 그림

서울 潤松美術館에는 嚴誠의 작품 2점, 潘庭筠의 작품 2점, 그리고 陸飛의 작품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연경에서 교류하던 시기에 받은 선물일 가능성이 크다.

(1) 嚴誠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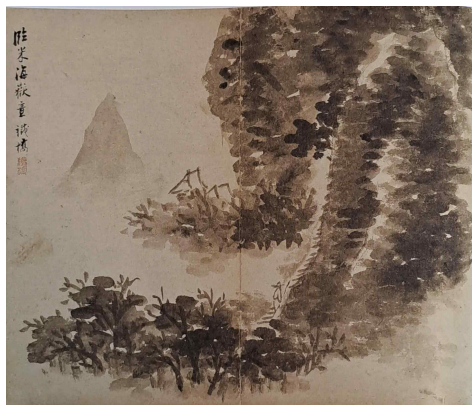
홍대용은 《건정동필담》 2월 9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 동방의 풍속의 書畫에는 年號・月・日을 쓰지 않으니, 앞으로 보내주실 서화에는 변변찮은 동방의 풍속을 좇는 것이 어떠신지요?”⁵³⁾

위의 글은 1766년 2월 9일 홍대용이 嚴誠이 머무르고 있는 乾淨衛 天陞店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엄성의 그림 두 점에는 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당시 홍대용의 요청에 의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52) 《鐵橋全集》卷四 〈日下題襟集・與鐵橋秋庫〉: “頃呈小帖, 蒙此分外奇惠山水木石, 點點皆留吾人精神妙用. … 丙戌仲春, 善行頓首.”

53) 《湛軒書》外集卷二 〈杭傳尺牘・乾淨衛筆談〉 2月9日: “東俗於書畫, 不書年號月日, 續此惠來者, 并徇鄙俗如何.”



① 嚴誠 雲山策杖
〈그림10〉 紙本水墨 29.9×23.4cm



② 嚴誠 秋水釣人
〈그림11〉 紙本水墨 27.2×21.6cm

① 嚴誠의 〈구름에 잠긴 산을 지팡이 짚고 오르다(雲山策杖)〉는 ‘한 은자가 삿갓을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초가를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거대한 나무가 수묵으로 짙게 표현되어 있으며, 줄기를 따라 굽이치는 필선과 옆으로 뻗어 짙은 점들이 겹겹이 쌓여 숲의 밀도를 보여준다. 왼쪽에는 煙霧에 잠긴 듯한 산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 아래에는 작은 초가가 배치되어 있다. 그 사이 좁은 산길을 따라 지팡이를 짚은 은자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곧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은자’의 상징적 모습이다. 그림의 왼쪽에는 ‘臨米海嶽意’, 곧 ‘海嶽 米芾의 필의를 본땀다’라는 관서가 적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자호인 ‘鐵橋’의 朱文方印이 찍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嚴誠은 北宋의 米芾(1051-1107)로부터 전래된 화풍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붓을 옆으로 눕혀 먹을 듬뿍 묻히고 점을 찍어 산과 수목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선을 그리기보다 점을 겹겹이 쌓아 올려 산의 질감과 숲의 밀도를 드러내고, 뚜렷한 외곽선을 쓰지 않으며 먹빛의 농담과 번짐만으로 덩어리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구름과 안개, 비에 젖은 듯한 강남의 습윤한 자연 풍광을 몽환적으로 묘사하기에 적합하였다.

洪大容은 일찍이 嚴誠과의 교류 과정에서 ‘米芾’에 대한 담론을 나눈 바 있다. 당시 엄성은 “潘庭筠이 米元章이나 趙松雪⁵⁴⁾과 같은 부류를 바라보며, 종신토록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지금 형(洪大容)의 견해를 듣고 보니, 그 차이가 실로 몇 천 겁에 달한다.”라고 언급하였듯이,⁵⁵⁾ 이는 곧 엄성 스스로가 米芾의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54) 趙松雪(1254-1322)은 趙孟頫를 말한다. 중국 원대의 관료이며 서화가로, 자는 子昂, 호는 松雪道人으로 불린다. 元代 제일인자의 서화가로 일컬어진다.

55)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 2月 12日 : “力闇曰, 蘭公只望如米趙二公之類, 亦

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米元章이나 趙松雪의 수준에 정통하고자 하는 일은 하루아침이나 하룻밤 사이에 성취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말하였다.⁵⁶⁾

② 嚴誠의 〈秋水釣人〉은 ‘가을 강에 낚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수목과 담채를 이용해 늦가을의 쓸쓸하면서도 고요한 정취를 표현한 그림이다. 강은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 하며 넓게 펼쳐져 있고, 왼쪽 하단과 중앙,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배치된 바위와 산, 그리고 나무들이 공간에 깊이감을 더하고 있다.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만 남은 나뭇가지들이 가을이 깊어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뭇잎이 떨어진 모습과 함께 강물에 희미하게 떠 있는 잔영들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변에 드리워진 잎 진 버드나무 그 모습만으로도 고요한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그림의 중심에는 샷갯을 쓴 어부가 노를 저으며 배에 서 있다. 그는 낚싯대를 드리우고 물 위에서 고요히 낚시를 즐기고 있다. 주변의 쓸쓸한 풍경 속에서 낚시를 하는 어부의 모습은 속세를 떠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화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다. 산과 바위의 표현은 윤곽선을 최소화하고, 濃淡이 다른 먹을 이용해 은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마치 가을 안개가 낀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주어, 그림이 가진 쓸쓸한 정서를 자아낸다.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는 초서로 “影鋪秋水面, 花落釣人頭.”라 題詩하고, “鐵橋寫意”라 관서하였으며, 白文方印을 찍었다. 사실 이 작품은 晚唐 咸通(860-873) 연간에 활동한 기녀시인 魚玄機(844?-868?)의 〈강변의 버드나무(賦得江邊柳)〉를 주제로 삼아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翠色連荒岸, 비취빛으로 이어진 황량한 언덕,
煙姿入遠樓. 안개 속 아득히 누각이 아른거린다.
影鋪秋水面, 가을 물결에 그림자 드리우고,
花落釣人頭. 떨어진 꽃잎은 낚시꾼의 머리에 내려앉는다.
根老藏魚窟, 오래된 버드나무 뿌리에는 굴이 생겨 고기들이 모여들고,
枝垂繫客舟. 드리운 가지 끝에는 나그네 배도 매어둔다.
蕭蕭風雨夜, 비바람 소리 거세게 이는 밤이면,
驚夢復添愁. 놀라 깨어나 다시 깊은 시름에 잠긴다.

엄성의 〈추수조인〉의 그림의 시구는 위의 시 제3, 4구의 承聯을 草書로 써 그림을 그렸

恐終身不到. 今聞吾兄之論, 真正差幾千劫在.”

56) 《湛軒書》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2月12日: “卽卑論之如米趙之精于藝者, 亦非一朝一夕所能成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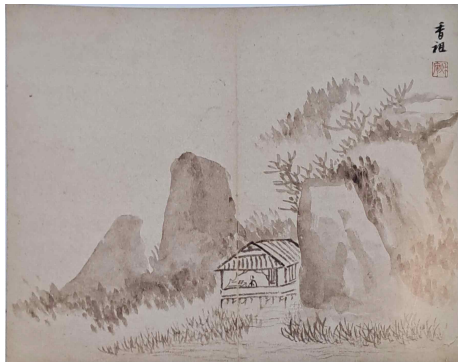
음을 알 수 있다.

潤松美術館 소장된 嚴誠의 그림 두 점은 款書에 연·월·일의 기록이 없어, 이 선물을 받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朝鮮六使臣이 燕京에서 교류하던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潘庭筠의 그림

潘庭筠은 嚴誠과 함께 會試에 응시하기 위해 乾淨衛의 天陞店에 머물며 조선육사신과 교분을 쌓은 인물이다. 그의 자는 蘭公, 별호는 秋厓이며, 壬戌年(1742)에 태어나 당시 25세였다.⁵⁷⁾ 홍대용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둥글며 눈매가 그려놓은 듯 단정하여 매우 준수한 외모를 지녔고, 재주가 넘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기질을 보였다고 한다.⁵⁸⁾

潘庭筠 또한 그림을 그리는데 뛰어났는데, 〈高士讀書〉와 〈老松掛月〉 두 점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다.



① 潘庭筠 高士讀書
〈그림12〉 紙本水墨 29.7×23.5cm



② 潘庭筠 老松掛月
〈그림13〉 紙本水墨 29.7×23.5cm

① 潘庭筠의 〈고사가 독서하다(高士讀書)〉는 깊은 산중의 누정에서 한 고사가 홀로 책을 읽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본 작품은 수묵의 간결한 필치와 농담의 미묘한 운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은일적 삶의 이상을 형상화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화면은 좌우로 크게 열려 있으면서도, 중앙부에는 기암과 수풀 사이에 자리한 소규모의 書玉이 묘사되어 있다. 서옥 안의 인물은 책상 앞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세속을 떠난

57) 《湛軒書》 外集二卷 〈杭傳尺牘·乾淨衛筆談〉 2月 3日 : “潘庭筠字蘭公號秋厓, 年二十五.”

58) 《乙丙燕行錄》 2月 3日 참조

고사의 심경을 반영한다. 화가는 산봉우리와 巨石은 은자를 둘러싸며 폐쇄된 공간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암시하는 동시에 학문과 수양에 몰두한 고사의 내적 세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유형의 그림을 흔히 ‘書屋圖’라 하며,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로 널리 애용되었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 ‘香祖’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秋庫’라는 글자가 새겨진 방형 인장이 찍혀 있다. 香祖와 秋庫는 모두 潘庭筠(1742-?)의 號이다.

② 潘庭筠의 〈老松掛月〉은 달과 어우러진 老松을 水墨으로 그렸다. 전형적인 文人畵 수법으로, 濃淡이 절제된 수묵으로 老松을 간결하게 그려냈다. 화면 오른쪽에는 오래된 소나무의 굵은 기둥이 자리 잡고 있고, 왼쪽으로는 가지가 뻗으며 잎이 송송 번져 나간다. 老松은 절개, 굳센 기상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여기에 달까지 어우러졌다면, 청정한 은자의 세계,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사색, 그리고 세속을 벗어난 자유로움을 함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인들이 달과 소나무를 즐겨 그린 이유도, 바로 이처럼 자신의 심성을 자연 속에 투영했기 때문이다. 그림 좌측에 ‘秋庫居士寫’라는 款書와 ‘庭筠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있다.

(3) 陸飛의 그림

陸飛(1719-?)는 浙江省 仁和 출신으로, 자는 起潛, 호는 筱飲이다. 건륭 30년(1765) 鄉試에서 解元으로 급제하였으며, 시와 그림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丙戌年(1766) 2월 22일, 육비는 京師에 이르러 嚴誠·潘庭筠 일행과 합류하였으나, 조선 사신단인 정사 李煊·부사 金善行·서장관 洪櫓 등과는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서신으로만 교류하였다.

다만 洪大容과 金在行은 이튿날인 2월 23일에 陸飛와 직접 만날 수 있었다. 홍대용은 육비의 첫인상에 대해 “체구는 작고 통통하였으며, 얼굴은 희고 풍채는 늙름하였다.”⁵⁹⁾라고 기록하였고,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다.

육비는 3월 1일이면 떠난 조선육사신에게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제시하여 선물로 주면서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냈다.

“陸飛가 올립니다. 어제 남방으로부터 온 손님이 金陵扇 다섯 자루를 구해 왔기에 부채 모두에 그림을 그리고, 아울러 시를 썼습니다. 바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工拙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부채 그림을 보내드리니 각각 나누어 가지시길 바랍니다.”⁶⁰⁾

陸飛는 金陵扇 부채 5개에 그림을 그려 正使 李煊, 副使 金善行, 書狀官 洪櫓와 子弟軍官

59) 《湛軒書》外集卷三 〈杭傳尺牘·乾淨衙筆談〉 2月 23日: “爲人軀幹短少, 而肥面白皙, 風儀偉然.”

60) 《湛軒書》外集卷三 〈杭傳尺牘·乾淨衙筆談〉 2月 28日: 飛啓. 日昨從自南客, 覓得金陵扇五握俱畫就, 並係以詩. 草草塗抹, 不計工拙, 今并呈送, 望分致之.”

金在行과 洪大容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받은 이 부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간송미술관에는 그림 한 점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陸飛 高士觀瀑(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그림14〉 絹本水墨 40.3×96.7cm

〈그림13〉은 杭州의 舉人 陸飛(1719-?)가 폭포를 바라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원편 폭포 옆에 “丙戌春日 杭州陸飛畫” 즉, “병술년(1766) 봄날 杭州의 陸飛가 그린 그림”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낙관이 ‘陸飛起蠶’이라는 白文方印이 찍혀있다.

수첩 적이 넘는 기암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한 고사가 지팡이를 짚고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다. 거대한 절벽과 폭포가 화면의 중심을 이루고, 인물은 화면의 하단부 한쪽에 배치되어 있다. 폭포는 수직으로 길게 드리운 필획을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바위의 질감은 짧고 겹겹이 쌓인 붓질로 힘 있게 드러났다. 먹의 농담을 통해 바위의 깊이와 굴곡, 물줄기의 흐름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며, 수묵산수의 특유의 운치가 살아 있다.

작품은 단순한 경물 묘사라기보다 ‘고사가 자연을 바라보며 사유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폭포 앞에 선 인물은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도도한 기운과 마주하는 문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文人畫에서 자주 드러나는 자연 속의 성찰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 내용과 유사한 기록, 홍대용의 《건정동필담》 2월 23일자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力闇(嚴誠)이 “《詩稿》 5책과 **비단 그림 5폭**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陸兄의 《시고》를 세 대인에게 각각 세 벌을 올리고, 두 형께 한 벌씩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폭의 비단 그림도 이와 같습니다.” 라 하자, 蘭公(潘庭筠)이 그 그림을 펼쳐 보여주는데, 모두 水墨으로 亂草를 그렸고, 필획이 웅장하고 뛰어났다. 난공이 두 폭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폭포를 그린 것이고, 저것은 구름의 모양(雲氣)입니다.” 라고 하는데 볼수록 기이하고 장엄하였다. 역암이 말하기를, “이것은 어젯밤 등불 아래에서 그린 그림으로 삼경三更이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 하였다.⁶¹⁾

陸飛는 촛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폭포와 구름을 그렸는데, 그가 그린 폭포가 바로 ‘高士觀瀑’ 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는 嚴誠과 潘庭筠보다 늦은 2월 22일에 상경하여 뒤늦게 합류했으므로, 洪大容을 만난 것은 이튿날인 2월 23일이었다. 그러나 陸飛는 이미 嚴誠으로부터 조선 육사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음을, 그가 홍대용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²⁾

2월 23일, 홍대용은 陸飛가 머무는 乾淨衙 天陞店을 찾아가 마침내 그와 조우하였다. 그 만남에서 육비는 전날 그린 그림을 홍대용에게 선물하였다. 홍대용은 이 그림을 받아보고 말하기를, “삼가 고이 받들어 모셔 돌아간 뒤에 보배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자, 육비는 “小道는 단지 유희거리를 제공할 뿐인데, 어찌 감히 輕重을 논하겠습니까? 雕蟲篆刻(보잘 것 없는 솜씨)은 장부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 즉, 이는 단지 남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따름입니다. 海東으로 가지고 가서 장독을 덮는 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한다.⁶³⁾

특히 陸飛의 〈高士觀瀑〉에는 “병술년(1766) 봄날 항주 육비가 그림(丙戌春日 杭州陸飛畫)”이라는 글씨가 있어, 燕京에서 조선사신단과 교유하면서 선물로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61) 《湛軒書》 外集三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續 2月 23日: “力闇以詩稿五冊, 綃畫五幅示我輩曰, 陸兄詩稿, 送三大人三本, 二兄分領一本, 其五幅綃畫, 亦如之. 蘭公展其畫而示之, 皆水墨亂草, 筆畫雄偉. 蘭公指二幅畫曰, 此瀑布此雲氣, 盖益奇壯也. 力闇曰, 此皆昨夜燈下所畫, 至三更始畢.”

62) 《湛軒書》 外集三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續 2月 23日: “書曰, 陸飛啓, 此行自恨來遲, 不及一親言論風采, 生平第一缺陷事也.”

63) 《湛軒書》 外集三卷 〈杭傳尺牘·乾淨衙筆談〉續 2月 23日: “余看畢曰, 謹當領歸, 若奉圭璧…起潛曰, 小道僅供遊戲, 何足爲輕重. 雕蟲篆刻, 丈夫不爲, 徒取笑耳. 如海東, 亦須此覆醬瓿則可矣.”

18세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 특히 조선의 연행 사절단과 중국 전당문사와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 깊이 있는 교유의 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흔적은 《乾淨衙筆談》과 《日下題襟集》에 잘 나타나 있으며, 두 저작은 18세기 한·중 민간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본 논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당시의 교류 유품을 중심으로 18세기 한·중 민간교류의 구체적 양상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안경으로, 1766년 琉璃廠에서 眼鏡을 매개로 ‘錢塘文士’와 ‘朝鮮六使臣’ 간의 교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시문·그림·인장·초상화 등 다양한 예술품의 교환도 진행되었다. 특히 嚴誠과 洪大容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천애지기의 우정을 맺었다.

우리나라에는 18세기 燕京에서의 만남을 증언하는 다양한 유품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 歷史博物館에는 眼鏡, 國史編纂委員會에는 朝鮮六使臣 畫像, 果川 秋史博物館에는 鐵橋外事小像, 水原 歷史博物館에는 潘庭筠의 부채가, 潤松美術館에는 嚴誠·潘庭筠·陸飛의 그림이 각각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崇實大學校 基督教博物館에는 《中士寄洪大容手札帖》이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전당문사와 주고받은 서신의 친필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모든 유품을 다루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 측에서는 당시 주고받은 유품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중국 학자들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선유사신이 선물한 유품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北京大學圖書館藏朝鮮版漢籍善本萃 編《日下題襟合集》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4
- 清, 嚴誠 著, 朱文藻 編《鐵橋全集》檀國大學校 淵民文庫(筆寫本 1, 2, 4책)
- 清, 嚴誠 著, 朱文藻 編《鐵橋全集》首爾大學校 中央圖書館所藏本
- 清, 嚴誠 著, 朱文藻 編《鐵橋全集》韓國國史編纂委員會圖書館所藏本(筆寫本 5책)
- 清, 朱文藻 編 劉婧 校點 《日下題襟集》上海古籍出版社 2018
- 《中士寄洪大容手札帖》 崇實大韓國基督教博物館 2016
- 洪大容, 李德懋 筆寫本《鐵橋話》天安博物館所藏本
- 洪大容家門編《燕杭詩牘》首爾大奎章閣 所藏本 1932
- 韓國綜合古典DB <http://db.itkc.or.kr/>
- 박현규 〈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韓國漢文學研究 2011
- 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第248冊, 民族文化推進會. 2001,
- 洪大容 《乾淨筆談》, 燕行錄全集》 第43冊, 東國大學校出版. 2001,
- 洪大容 《乙丙燕行錄》國立中央圖書館 1997
- 李德懋 《靑莊館全書》韓國古典翻譯院 1980년
- 清, 陸飛 《筱飲齋稿》 清乾隆四十一年刻本 检索该书影印古籍
- 李德懋, 民族文化推進委員會編 《(國譯)靑莊館全書》奎出版社 1997
- 洪大容《乾淨筆譚》,韓國奎章閣藏《湛軒說叢》收錄抄本
- 洪大容《乾淨附編》,韓國基督教博物館藏抄本
- 洪大容《乾淨後編》,韓國基督教博物館藏抄本
- 《樂敦墨緣》, 韓國基督教博物館藏收錄本
- 《古杭赤霞》,韓國基督教博物館藏收錄
- 《中朝學士書翰錄》, 高麗大學古籍部藏原帖
- 《乙丙燕行錄》, 韓國基督教博物館藏抄本
- 朴趾源《燕巖集》景仁文化史 影印 1978
- 《中朝學士書翰》, 韓國高麗大學中央圖書館藏本
- 具教賢 〈日下題襟集內容分析〉 中國學論叢, 2021, 03

〈中文摘要〉

本文以我国现存的18世纪中韩民间交流遗物为中心,考察了18世纪中韩民间交流的具体状况.首个案例为眼镜.1766年,在琉璃厂,通过眼镜促成了“钱塘门士三人”与“朝鲜六使臣”之间的交往,由此推动了诗文、绘画、印章、肖像画等多种艺术品的交换.尤其是严诚与洪大容,借此交流建立了深厚的知交之道.在我国,多处机构收藏了证明当年燕京交流的珍贵遗物.首尔历史博物馆收藏有眼镜,水原历史博物馆收藏有潘庭筠的画扇,果川秋史博物馆收藏有铁桥外事小像,国史编纂委员会收藏有朝鲜六使臣肖像,澗松美术馆收藏有严诚、潘庭筠与陆飞的绘画.此外,崇实大学基督教博物馆收藏的《中士寄洪大容手札帖》中保留了钱塘门士与朝鲜使臣往来的亲笔书信.由于篇幅所限,本文未能详尽讨论所有遗物,期望在后续研究中进一步介绍.

주제어: 《철교전집》, 《철교화》, 《일하제금집》, 《일하제금합집》, 《담헌서》, 《항전적독》, 《건정동필담》, 엄성, 반정균, 육비, 홍대용, 철교외사소상, 반정균의 부채, 조선육사신화상, 간송미술관

《鐵橋全集》, 《鐵橋話》, 《日下題襟集》, 《日下題襟合集》, 《湛軒書》, 《杭傳尺牘》, 《乾淨衙筆談》, 嚴誠, 潘庭筠, 陸飛., 洪大容, 鐵橋外事小像, 潘庭筠畫扇, 朝鮮六使臣畫像, 澗松美術館.

《A collection of Tie Qiao》, 《Conversations of Tieqiao》, 《Collection of Rixiatijin》, 《Collected Works of Damheon》, 《Letters Transmitted from Hangzhou》, 《Conversations in a Genjungdong》, Yan cheng, Pan ting-jun, Lu fei, Hong Dae-yong, Portrait of T'ieqiao (鐵橋) in External Affairs, Fan Painted by Pan Tingjun(潘庭筠), Portraits of the Six Envoys of Joseon, Gansong Art Museum.

靑莊館全書卷三十四 / 淸脾錄[三]

潘庭筠字蘭公。一字香祖。號秋庫。乾隆壬戌生。美姿容。藻思警發。書畫雙絕。金養虛，洪湛軒遊燕。相逢定交。妻湘夫人。亦工詩。有舊月樓詩集。

반정균(潘庭筠)의 자는 난공(蘭公)이고, 또 다른 자는 향조(香祖)이며, 호는 추루(秋庫)이다. 건륭(乾隆) 청 고종(淸高宗)의 연호 임술년(1742)에 출생하였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조사(藻思 시문(詩文)의 재능)도 기발하며, 서화(書畫)에도 모두 뛰어났다. 김양허(金養虛)·홍담헌(洪湛軒)이 연경(燕京)에서 서로 만나 교분을 맺었는데, 그의 아내 상부인(湘夫人)도 시에 능하여, 《구월루시집(舊月樓詩集)》이 있었다.